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 교목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다박영미 안젤라 수녀입니다. 1992년 2월 수녀원에 입회 하고서 그 동안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로, 본당 수녀로 그리고 지금은 서강대 교목처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으로서, 그리고 학생들 상담을 하고는 있는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서강대는 2012년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상담 인턴 수련을 시작하면서 맺게 된 인연으로 레지턴트 수련을 마치고 교목처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서강대 교목처에서는 9명의 스텝들과 함께 5단체의 동아리 학생들이 평일미사와 주일미사를 준비하고 복사와 성가

대로 활동합니다. 시험기간에도 공강시간을 이용해서 전례에 적극 참여할 정도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활동한답니다. 그리고 교직원들도 1시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레지오를



하며 틈틈이 퇴근 이후 시간을 활용해서 성경모임을 갖기도 합니다. 이런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작은 몸짓이지만 우리가 하느님 안에 함께 가고 있음을 느끼며 저에게도 많은 재촉이 됩니다.

이런 업무와 더불어 저는 학생들과 상담을 하면서 무척 인상 깊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만날 때는 밝고 거침이 없었던 학생들이 저의 방문을 노크하고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너무나 상처받고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동안 공부만 했던 학생들이 대학이라는 자율성 안에서, 또는 취업이라는 압박감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모습을 볼 때면 청소년기에 겪었어야 할 '사춘기'를 이제야 겪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학생들과 주 1회씩 상담을 하면서 조금씩 자신의 아픔을 보듬고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며 이대로도 괜찮음을 알게 되면서 무기력했던 학생들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자신을 위해 도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스스로 돕고자 하는 학생들의 열정과 의지에 비해 작은 저의 도움이지만 함께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작업은 참으로 소중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저의 작은 몫이 하느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도구이길 바라며 하루를 시작해봅니다. ^^



Hello Sisters! My name is Sr. Park Young Mi (II) and my baptismal name is Angela. I entered the Sisters of Charity of Seton Hill in February, 1992. In past years, I worked as a teacher of middle and high school, and as a parish Sister. Now I am working at SoGang University as a campus minister and counselor.



I have been working at SoGang University since 2012. In the beginning, I did my counseling internship and residency at the Counseling Center of the School. Finishing the residency program, I was asked to work there as a campus minister. In addition to me, there are nine staff members at SoGang University Campus Ministry, and the students belonging to five activity circles gather together to offer Mass and

they are altar servers and choir members. The students participate very actively in the liturgy when they aren't in class and they feel very proud of their services. The faculty members also



are actively involved in Legion of Mary during one hour lunch breaks and Bible Study after work. Whenever I look at them, I am inspired by their passion and zeal.

As a counselor I have experienced so many things. While talking with students, I was surprised to find their deep sorrow, hurts and pains hidden behind their bright faces. They had to stay and study at school all the time to enter college or university. However, as soon as they are free from that study, they begin to lose their way in the unfamiliar atmosphere of freedom, and they are struggling with looking for their identity under the pressure of getting

jobs. It seems to me that it is not until now that they are entering adolescence that they should have gone through before. After having counseling with me once a week, I find that they gradually begin to accept their past hurts and themselves. They became cheerful and take courage to face the challenges. It makes me feel so happy. I know that I cannot do everything; however, I am sure that my little help for them is very meaningful because we can create positive

energy through our interactions. Now, I begin my new day hoping I might be an instrument of showing God's love to others.

